

NEWS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석유화학 범용소재 고부가가치 전환 속도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이 대통령, 근로감독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역할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GGM 생산’서 계속

더욱이 파업과 갈등은 공장 가동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광주’라는 도시 이미지는 물론 현대차의 신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GM은 4년 만에 20만대 양산 달성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 불황과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국내 제1호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GGM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냈다”며 “노동의 가치와 상생의 가치는 모두 중요하다. 시민들과 함께해온 2018년 이후 우리의 약속인 상생의 가치를 키워가면서 노동의 가치 씨앗도 계속 키워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GGM은 앞으로 생산역량을 더욱 강화해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시는 GGM이 글로벌 전문 완성차 공장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소득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 선정…166억 확보
여수산단 중심 2028년까지 탄소소재 제조 기술 등 개발

전남도가 석유화학 범용소재 고부가가치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공모한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에 선정돼 166억

원을 확보했다.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속에서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은 폴리올레핀(PE·PP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66억원(국비 111억원·민자 55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다. 여수국가산단 DL케미칼이 주관해 진행한다.

폴리올레핀은 중국과 중동 지역 대규모 설비 증설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대표적 범용소재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올레핀의 수요처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과제는 폴리올레핀을 열분해와 구조제어 기술로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해 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공성 탄소소재의 경우 원료부터 최종 물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완료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올해 여수시가 선정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이어서 의미가 깊다”며 “기존 범용소재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전환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치해 기업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美구금 한국인들 내일 전세기 탑승 예정”

“희망자 신속 귀국 최선”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운데 이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지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틴의 미 이민세관단 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틴 구금 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총영사는 “전세기를 운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협의해보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잭슨빌 공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남에 이어 이날도 포크스틴 ICE 시설에서 구금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 직원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 시설에서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 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부문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기업탄소액션’ 확대

14개사 신규 참여… 지난해 12개사 1118t 감축 성과
2030년까지 평균 배출량 대비 11% 이상 자발적 목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업탄소액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업탄소액션’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광주시가 국가배출권거래시장(BTS)을 준용해 마련한 배출권거래시스템에서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다.

광주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업탄소액션 사업에 올해 신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4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참여기업은 코비코㈜, 지금강(주), ㈜태봉, 세방산업(주), ㈜성진글로벌,

벌, ㈜파바나인, ㈜디엔코, 대한공조(주), ㈜씨.피코리아, 태성산업(주), 무등스 등기업 등 14개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을 포함해 총 24개 기업이 올해 기업탄소액션 사업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참여기업 12개사의 자발적 노력으로 총 1118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같은 기업탄소액션 사업에 올해 신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4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2022년 평균 배출량 대비 11% 이상 자발적으로 줄여야 하며, 감축분은 분기별 모의거래로 처

리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업탄소액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을 담당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과 더불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감축 노력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시가 선도적인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협약식에서 ‘2024년 기업탄소액션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그린테크(주), 오텍캐리어(주), 아르네코리아(주) 등 3개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연장해야”

시의회,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 안건 제출

광주시의회가 8일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2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어 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6년 까지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 단계에 들어선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대체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건물 개보수 등 현대화 수요가 크지만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상공

인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역 상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상권이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이다”며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반드시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발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재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